

유용성의 관점에서 본 도서관목록의 품질

Quality Evaluation of Library Catalogs: with an Emphasis on 'Utility'

노 지 현(Jee-Hyun Rho)*

목 차

- | | |
|----------------------|--------------------|
| 1. 서론 | 3. 도서관목록의 유용성 검증 |
| 2.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에 대한 정의 | 3.1 유용성 검증을 위한 방법 |
| 2.1 기존 논의의 한계와 문제점 | 3.2 검증 결과에 대한 해석 |
| 2.2 유용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 | 4. 결론: 유용성의 관점에서 본 |
| 2.3 유용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 | 도서관목록의 한계와 문제점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도서관이 생산해 내고 있는 목록의 가치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논의하는데 있다. 특히, 도서관 이용자의 관점에서 도서관목록이 그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목록이용자들의 견해를 중시하면서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측정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현 단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직접 측정하였다. 유용성에 대한 측정 결과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유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ABSTRACT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utility of library catalogs from library users' point of view. Emphasis was on verifying how useful library catalogs are as a tool in order to satisfy the information need of library users. To the end, this study developed the criteria and indicators that can be used to measure the utility of library catalogs from users' viewpoint. On the basis of it, the utility of library catalogs was measured systematically. Sample catalog records for the utility verification were selected from 6 most representative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The result of verification was presented and described with the typical examples, and the key factors that caused the low utility of library catalogs were also identified and discussed.

키워드: 도서관목록, 유용성, 품질평가, 품질검증

Library Catalog, Utility, Quality Evaluation, Cataloging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rhojee@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3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03년 6월 11일

1. 서론

1941년 Osborn은 '목록의 위기' (The Crisis of Cataloging)를 언급하면서 목록의 기술규칙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번잡하여 목록 생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료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도서관목록은 도태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편목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용자'의 입장, 즉 <실용적인 입장>에서 목록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Osborn 1941).

정보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Bush 또한 1945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도서관의 구태의연한 도서분류와 검색체계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정보의 홍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이용자는 도서관에 쌓여 가는 자료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진단했다. 즉, 엄청난 비율로 증가하는 정보의 미궁을 뚫고서 지금 당장 중요한 항목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목록이라는 수단은 '뚝 단배'를 타던 시절에 사용하던 것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그가 지적한 것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지식이 요구되고 양산되지만, 그 성과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작업이 너무도 미미하다는 것이었다(Bush 1945).

Osborn과 Bush가 제기하였던 이러한 문제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져, 도서관은 극심

한 혼돈과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도서관목록은 도서관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작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논리적 경로이기보다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이자 소장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탐색 도구에 머물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목록을 더 이상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일차적인 탐색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굳이 도서관 목록이 아니더라도 정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체 수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도서관목록의 역할과 서비스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 도서관이 생산해 내고 있는 목록의 가치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도서관 이용자의 관점에서 도서관목록은 그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목록에 대한 목록생산자와 목록이용자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보았다. 또한, 목록이용자들의 견해를 중시하면서 우리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 명료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현단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직접 측정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이 열악하게 된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는 현단계 도서관목록이 안고 있는 각종 '부실'을 제거하고 '유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2.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에 대한 정의

2.1 기존 논의의 한계와 문제점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목록의 품질 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QM)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전까지 도서관 목록에 대한 관심이 데이터의 양적 증가와 규모의 확대를 위한 '기반의 구축'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 때부터 관심의 초점이 품질향상을 통한 질적 발전과 이용자층의 만족 제고와 같은 '안정화 전략'으로 옮겨왔다. 1990년대에 발표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도서관목록의 품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품질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품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토론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품질'의 개념을 확고히 정립하고자야 비로소 도서관목록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미의회도서관에서는 1992년까지만 하더라도 "Descriptive Cataloging Manual"과 같은 표준지침에서 벗어나는 목록레코드를 '에러(error)'로 규정하고, 이를 목록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절대적인 원인으로 간주하였다. 완전무결한 '표준(standards)'이 곧 도서관목록의 '품질(quality)'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편목사서들은 이러한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받았을 뿐 아니라 이를 준

수했는지의 여부를 검열하는 절차를 목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러한 관행과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과연 도서관목록의 품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는 도서관목록의 품질 문제에 '이용자'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질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이 시기에 생산된 여러 선행연구들을 조사해보면, 도서관목록의 품질은 불변하는 특정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의된 내용에 따라서 품질검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목록의 품질을 ① 데이터 자체의 품질과 ②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③ 기타 일반적인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이계환, 2002). 그러나 대부분 선행연구의 초점은 목록에 수록된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주어져 있다. 이에 비해, 서비스의 품질을 다룬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의도적으로 무시되거나 혹은 경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의 품질을 다룬 소수의 연구들조차 그 내용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성 및 인터페이스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용자의 관점에서 목록이 얼마나 유용

하게 이용되는지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관목록의 품질에 대한 대부분의 담론이 목록생산자나 목록전문가의 관점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내용적으로 유용한 것보다 외형적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이 품질 평가에 있어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취급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도서관목록의 본질적 목적, 즉 이용자들로 하여금 방대한 도서관 장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지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를 제공하겠다는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목록의 형식이 아니라 목록에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2. 2 유용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

도서관목록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생산'과 '이용'으로 구분해 볼 때, 여기에는 각기 다른 가치 기준이 존재한다. 목록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소요된 생산비용과 노동에 대한 가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목록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이용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사용 가치에 대한 기준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목록생산자들은 일종의 '상품'으로서 도서관목록이 가지는 객관적인 품질에 궁극적인 가치를 둘 수 있지만, 목록이용자들은 목록을 이용한 결과로서 얻게 되는 실질적인 만족

도, 즉 유용성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이처럼, 목록을 생산하는 생산자 집단과 목록을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이 도서관목록이라는 동일한 실체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그들이 직접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제 도서관목록을 생산하는 '편목사서'와 도서관목록을 이용하는 '도서관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들 두 집단이 도서관목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을 직접 조사해 보았다. 조사방법은 편목업무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기관의 편목사서와 도서관이용율이 높은 이용자, 궁극적으로는 비교적 도서관목록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서 50만권 이상에 해당되는 중규모 이상의 대학도서관 중에서 편목사서의 수가 5명 이상인 23개 대학도서관의 편목사서 157명과 2개 대학도서관으로부터 2003년 1월 도서관 대출 실적이 가장 우수한 이용자 각각 100명씩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질문지를 배포한 후 답변을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편목사서 73.1%(112명)와 도서관이용자 81%(162명)이었다.¹⁾

조사결과, 편목사서들이 목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1) 질문지는 2003년 3월 5일 전자우편을 통해 일괄적으로 배포되었으며, 3월 21일 대부분 회수되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편목사서의 도서관 근무경력은 평균 12년, 그리고 편목업무를 담당한 경력은 평균 4년이었으며, 직급별로는 과장 2명, 주무(주임) 21명, 실무담당자 89명이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한 최종이용자들은 학년별로는 2학년 45명, 3학년 43명, 4학년 59명, 학부졸업생 1명, 대학원생 14명이었으며, 전공별로는 인문계열 101명, 사회계열 20명, 자연계열 14명, 이공계열 24명, 예체능계열 3명이었다.

오·탈자나 누락 혹은 중복됨이 없이 데이터의 값이나 표기, 내용이 정확하고, 더불어 구조나 내용이 표준화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요구를 도서관목록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수록하면 되는가'(42명/37.5%)라는 점보다 '정해진 규칙과 형식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70명/62.5%)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편목 과정에서 '형식 및 체계의 완벽성'과 '내용의 충실성' 중에서 어느 쪽에 보다 중요한 가치를 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비록 큰 차이는 없었으나 '보다 상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64명/57.1%)을 '정해진 형식과 체계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48명/42.9%)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편목사서들에게 도서관목록의 '형식'과 '내용'은 둘 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형식보다는 내용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목록을 생산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우리의 도서관목록은 내용보다는 외형적 형식주의에 얽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종이용자가 생각하는 도서관목록은 목록생산자인 편목사서들의 관점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즉, 도서관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로 높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목록은 이들에게조차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선호하는 탐색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오히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선호하고 있었으며(130명/80.2%), 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용의 편리성(115명)과 내용의 풍부성(15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도서관목록을 가장 선호하는 탐색수단으로 답변한 이용자는 겨우 23명(14.2%)에 불과했으며, 선호하는 이유는 검색의 신뢰성(9명)과 이용의 편리성(8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목록을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기 위한 수단(45명/27.8%)이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46명/28.4%)보다는 단순히 소장자료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1명/43.8%). 이들에게 있어 도서관목록은 자신의 정보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검색도구로서 보다는 단순히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위치를 알려주는 도구로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다른 매체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고 확인한 다음, 소재파악을 하기 위하여 다시 도서관목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서관목록이 목록이용자들에게 자

2) 연구자는 도서관이용율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도서관목록에 대한 이용율도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도서관 대출실적이 우수한 이용자를 설문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서관목록을 자주 이용(26명/16.0%)하거나 보통(90명/55.6%)인 경우 못지않게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46명/28.4%)는 답변이 의외로 많이 나왔다.

신의 정보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서관 목록에 수록된 '내용적 불충분'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의 보완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08명/66.7%). 결과적으로, 목록이용자들은 잘 짜여진 구조나 형식을 갖춘 도서관목록보다는 목록에 수록된 내용이 얼마나 상세하고 풍부한가, 그리고 그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27명/78.4%).

이러한 목록생산자와 목록이용자 간의 인식의 차이는 도서관목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이를 둘러싼 현상을 기술하거나 설명하고 예측/통제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목록생산자의 입장을 강조하게 되면,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전성과 같은 데이터 자체의 '무결성'과 데이터의 연계성이나 유연성과 같은 '기술적 우수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최종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정보요구를 해결하는데 있어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목록생산자인 사서가 생각하는 도서관목록과 이용자가 생각하는 도서관목록의 개념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즉, 목록생산자인 사서에게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형식적 완전성'이 중요하지만, 목록이용자들에게는 이보다는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의 여부, 즉 '내용적 유용성'이 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한자의 오차도 없이 데이터

가 입력되어 있거나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때 갱신하는 것이 목록생산자에게는 도서관목록의 품질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용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체만으로 곧 품질이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도서관목록에 대한 목록생산자들과 목록이용자들의 상반된 입장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2.3 유용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

이러한 이유에서, 이 연구에서는 목록생산자보다 목록이용자의 관점을 중시하여 그들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용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용성'(utility)이란 개념을 도서관목록에 직접 적용해 볼 때, 우선 개념 자체에서 불러올 수 있는 혼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랫동안 도서관계에서 이러한 내용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정확한 개념 정의를 도출해 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많은 연구자들이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적절성(pertinence)'이나 '관련성(relevance)', '만족도(satisfaction)' 혹은 '주제적 연관성(topicality)'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들 개념을 뚜렷이 구분해 내기란 힘들어 보인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용자들이 시스템의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이 얼마나 용이한지 등과 같은 기능적 측면을 부각시킨 '사용성(usability)'이란 개념까지 강조되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 간의 정확한 차이는 아

직까지 애매모호한 것으로 남아 있으며, 더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연구에서조차 어떠한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기 다른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이들 용어 간에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와 반대로 각 개념 간의 고유한 영역도 존재하게 된다. ‘유용성’이란 개념도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사용성’이라는 개념에 보다 근접하게 되지만,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관련성’이나 ‘주제적 연관성’ 등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유용성’의 개념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즉, 도서관 이용자가 정보와 관련하여 봉착하는 문제를 도서관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도서관목록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유용성’으로 간주한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품질(quality)’이 목록의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상태를 측정하여 품질의 ‘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데 목적이 있다면, 유용성은 이러한 품질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적인 기준이 된다.

이 연구에서 유용성의 개념을 목록의 품질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도서관목록을 이용하였을 때 이용자가 얻는 ‘사용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있다. 앞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목록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바로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의 유용성이었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특정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면보다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얼마나 충족해 주는가와 같은 질적인 면이 더욱 중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최대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록이용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투자한 결과물에 대해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도서관경영진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용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만족도, 즉 ‘유용성’을 측정해 낼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데 있다. 만일 유용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체계적으로 찾아낸다면,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도서관목록의 유용성 검증

3.1 유용성 검증을 위한 방법

3.1.1 기준 선정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용성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은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관점이나 표현하는 용어, 그리고 용어를 해석하는

3) 사용성(usability)은 궁극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이용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목적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들의 요구가 성공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해 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식의 차이로 인해 명료하게 정립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실제 목록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관점을 가능한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측정해 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 명료한 기준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우선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목록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단계에 걸쳐 조사하였다.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 발표된 수십 여 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기존에 검증된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함이었다. 다음,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과연 객관적이고 타당한지를 검증해 보기 위하여, 이 리스트를 근거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은 결국 최종이용자의 선택과 이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앞서 설문조사에 응했던 162명의 목록이용자들에게 제시된 항목을 5단계 척도(Likert Scale)로 각 항목의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한 다음⁴⁾, 그들이 도서관목록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직접 조사하였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별된 항목 - 측정값의 평균이 '보통'에 해당하는 점수인 3점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 - 을 제외한

후 유용성을 검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최종 리스트를 완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도서관목록이란 검색이 용이하고 단위 레코드에 수록된 데이터가 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연히 원하는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고, 탐색된 결과에 수록된 내용이 자신의 정보요구를 해결해 나가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전자는 '검색성'과 '편의성', '이용자지원성'으로, 그리고 후자는 목록에 수록된 내용의 '포괄성'과 '상세성', '완전성', '정확성' '적합성', '최신성' 등으로 분류된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용자들에게 있어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은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기능적 유용성'과 적합한 자료인지를 식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적 유용성'으로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단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중 도서관목록이 제공하는 '기능적 유용성'은 온라인목록(OPAC)의 등장과 함께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성(functional capabilities)'이라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영역이다.⁵⁾ 더구나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OPAC 사용이 보편화되면

4) 중요도는 '매우 중요-중요-보통-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전혀 중요하지 않음'으로 구분하고, 측정값을 각각 5점-4점-3점-2점-1점으로 할당하였다.

5) OPAC의 기능성과 인터페이스의 유용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사람은 John M. Cherry이다 (Cherry 1994: 1998). 그는 OPAC의 기능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모두 포괄하여 4개의 영역에 대해 1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캐나다 지역 12개 대학도서관의 OPAC을 직접 평가 실험한 바 있다. 여기서 사용된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OPAC의 기능성을 평가하는데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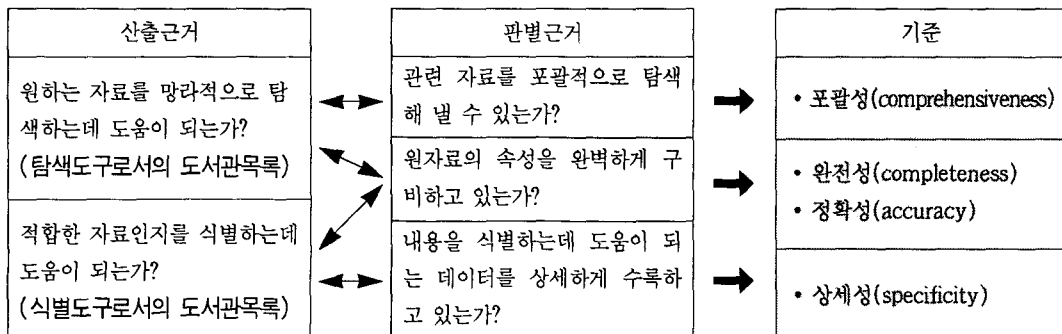
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검색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서관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를 연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목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기능적인 측면(기능적 유용성)을 제외하고, 도서관목록이 제공하는 '내용적 유용성'에만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기능적 유용성'은 시스템의 제어 능력을 통해 향상될 수도 있지만, '내용적 유용성'은 도서관에서 목록을 생산해 내는 관행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조사결과 중에서 '내용적 유용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만을 선별하여 현단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최종 기준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하되, 보다 이용자의 관점에 근접하여 '도서관목록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얼마나 망라적으로 탐색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합한 자료인지를 식별하는데 도서관목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 두 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용자가 도서관목록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고 그 중에서 보다 적합한 자료를 선별해 내는데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탐색도구로서 도서관목록이 가지는 '망라성'(recall)과 식별도구로서 도서관목록이 가지는 '적합성'(precision)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산출근거로 하여, 도서관목록의 '적절성'(pertinence)을 종합적으로 판별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구체적인 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자료를 망라적으로 탐색해 내는 과정에서는 ① 도서관목록이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해 낼 수 있는지와 ② 탐색접근점이 되는 지점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지가, 그리고 적합한 자료인지를 식별하는 과정에서는 ③ 내용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지와 ④ 원자료의 속성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가 유용성을 판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유용성 검증을 위한 기준



이 중에서, ①은 망라성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리고 ②는 적합성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③과 ④는 망라성과 적합성 모두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이러한 항목을 판별근거로 하여 각각의 항목을 검증할 수 있는 최종 기준을 도출해 보면, ①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할 때 도서관목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포괄성)와 ② 탐색된 결과 가운데 적합한 자료인지를 식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원자료의 속성에 대한 기술이 상세한지(상세성), ③ 도서관목록에 포함된 데이터 필드와 데이터는 원자료의 속성을 완전하게 기술하고 있는지(완전성), 그리고 ④ 원자료의 물리적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정확성)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때, '탐색도구'로서의 도서관목록은 ① 포괄성과 ③ 완전성(보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적 완전성) 및 ④ 정확성을 통해, 그리고 '식별도구'로서의 도서관목록은 ② 상세성과 ③ 완전성(보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적 완전성) 및 ④ 정확성을 통해 각각 구체적으로 검증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1. 2 기준별 지표와 측정방법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이 정해지면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리고 어떤 절차로 측정할 것이며, 측정된 결과는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진행된 인터뷰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앞서 선정된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산정하고, 더불어 이들 지표를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지표>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단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질적으로 검증하되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목록에 수록된 데이터의 조직적 집합체로서 '레코드'가 가지는 성능과 개별 레코드에 수록된 '데이터'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앞서 제시된 4개의 기준을 검증하기 위한

<표 2> 기준별 지표

기준	목적	지표
포괄성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해 낼 수 있는지를 검증	적합문헌을 검색해 내는 능력
상세성	적합한 자료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지를 검증	단위 레코드에 기술된 데이터의 규모와 범위
완비성	원자료의 속성을 완전하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검증	① 데이터 필드의 포괄성 ② 데이터 필드 내 데이터의 비누락성
정확성	원자료의 물리적인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	① 내용이 부정확한 레코드의 비율 ② 표기가 부정확한 레코드의 비율

구체적인 지표는 다음 <표 2>와 같이 선정되었다.

다음, 선정된 6가지 지표에 따라 우리 도서관이 생산해 내고 있는 목록의 유용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단위 도서관에서 생산한 목록 레코드의 객관적인 상태를 평가해 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이 생산해 내고 있는 목록이 과연 이용자의 입장에서 유용한지의 여부를 판별해 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결과보다는 유용성을 측정하는 실제적인 '과정' 그 자체를 더욱 중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도서관목록을 이용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선정된 지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현단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검증하되, 이 연구에서는 측정결과를 계량화하거나 점수화하지는 않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현단계 도서

관목록의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방법은 우리 도서관이 생산해 내고 있는 목록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관찰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 근거에 따라 현단계 도서관목록을 분석해 보면, 우리 도서관목록이 어떤 이유에서 유용성이 부족하며, 더불어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이 강화되어야 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3. 1. 3 표본 조사의 방법과 절차

앞서 개발한 기준과 지표, 그리고 측정방법에 따라 현단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거하여, 표본 도서관을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표본 레코드를 추출하였다. 우선, 분석대상 도서관목록은 도서관장서와 규모, 직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대학도서관 중 상위 6개 대학도서관(국립대학도서관 3개관과 사립대학도서관 3개관)으로 선정하였다. 그

<표 3> 지표의 측정방법

기준	지표	측정방법
포괄성	적합문헌을 검색해 내는 능력	특정 질의에 적합한 문헌 중에서 실제 검색된 적합문헌의 비율(%) 측정
상세성	단위 레코드에 기술된 데이터의 규모와 범위	포괄성 측정을 위해 검색된 레코드를 대상으로 단위 레코드당 데이터 필드의 활용도 조사
완전성	① 데이터 필드의 포괄성 ② 데이터 필드 내 데이터의 비누락성	포괄성 측정을 위해 검색된 레코드를 대상으로 ① 데이터 필드 자체가 누락된 레코드의 비율(%)과 ② 데이터 필드 내 데이터의 일부가 누락된 레코드의 비율(%) 측정
정확성	① 내용이 부정확한 레코드의 비율 ② 표기가 부정확한 레코드의 비율	포괄성 측정을 위해 검색된 레코드를 대상으로 ① 데이터의 내용이 부정확한 레코드의 비율(%)과 ② 데이터의 표기가 부정확한 레코드의 비율(%) 측정

이유는 편목담당사서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한 도서관목록이 다른 도서관목록에 비해 '대체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더불어 국내 대학도서관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이들 기관이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6개 대학도서관에서 생산한 도서관목록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도서관목록의 전반적인 유용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도서관으로부터 '표본 레코드'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의 의거하였다: 첫째, 도서관 검색시스템의 기능 차이로 인한 검색결과와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둘째, 이용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도서관목록을 탐색하는 행위 중 하나일 것. 결과적으로, 목록에 기술되어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통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연구자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저자명' 검색을 통해 표본 레코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저자명 검색에 있어서는 '탐색질의'를 활용하여 표본 레코드를 선정하였다. 탐색질의는 특정 저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 중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명'으로 결정하였다. 외국인명의 경우에는 원저자를 표기하는 방식이 상이할 수 있어 이 자체로 검색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사례는 이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했던 내용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표본 레코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어봄으로써, 이용자의 입장에 보다 근접하여 유용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6개 대학도서관의 목록을 대상으로 동일한 '저자명'으로 탐색질의를 설정하여 검색한 후 그 결과를 표본 레코드로 삼아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3. 2 검증 결과에 대한 해석

3. 2. 1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해 낼 수 있는가?

오늘날 도서관목록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탐색해 내기 위한 검색도구로서의 기능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자료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그 중에서 적합한 자료를 식별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특히,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이들이 도서관목록을 이용하는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자신의 정보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해 내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6개 대학도서관의 목록을 근거로 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즉,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자료가 실제로 얼마나 검색되는지를 확인해봄으로써, '포괄성' 측면에서 현재의 도서관목록이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현 단계 도서관목록은 이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항목으로도 과연 탐색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다음 '검색실험'을 통해 실제 관련된 자료가 얼마나 검색되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았다.

① 목록에서 제공하는 탐색 접근점

전통적으로 도서관목록은 이용자가 알고 있는 '서명'과 '저자명' 그리고 '주제명'에 의해 원하는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그 경로를 제공해 왔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경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세 가지 항목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목록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제한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지금은 이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항목으로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개 대학도서관의 목록을 보면, 아직까지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즉, 이용자가 접근점으로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ISBN(ISSN)이나 LCCN, 등록번호, 청구기호 등과 실제 그 기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주제명⁶⁾, 목

차, 초록을 제외하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서명'와 '저자명', 그리고 '출판사' 단 3가지 항목뿐이기 때문이다(검색항목에 [전체] 또는 [전체키워드]는 검색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접근점을 총괄한 것을 의미하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제 세 가지 항목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원하는 자료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만큼 초입단계에서부터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탐색 경로를 제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이러한 항목으로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고자 할 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입력한 특정 '탐색어'에 따라 그 결과가 아주 상이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스캇 펙'(M. Scott Peck)이 저술한 모든 자료를 탐색

<표 4> 목록에서 제공하는 탐색 접근점

학문분야	표제	저자명	주제명	출판사	ISBN(ISSN)	LCCN	등록번호	분류번호	청구기호	서지번호	목차	초록	전체(키워드)
'가' 대학	○	○	○	○	○	○	○	○	○	○			○
'나' 대학	○	○	○	○	○	○	○	○	○	○			○
'다' 대학	○	○		○	○	○							○
'라' 대학	○	○		○									○
'마' 대학	○	○	○	○									○
'바' 대학	○	○	○	○							○	○	○

6) 주제명은 OCLC나 서지유틸리티를 활용하여 'copy cataloging'을 한 서양자료에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편목담당사서들이 직접 편목한('original cataloging') 국내자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주제명을 기입할 수 있는 주제명부출표목인 600(개인명), 610(단체명), 611(회의명), 630(통일서명), 650(일반주제명), 651(지명) 필드가 모두 USMARC을 그대로 변안한 것에 불과해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조차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들 필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명표목표는 'LC주제명표목표', 'LC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NLM 주제명표목표', 'NAL 주제명표목표' 등으로 정해져 있어, 우리 자료에 대한 주제명을 부가하기는 힘들어보인다. 따라서 국내자료에 대한 주제명은 대부분 '비통제주제명(653 필드)'에 기술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여기에 사용된 주제명은 통제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주제명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만큼 활용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다.

해 보는 것으로 하여 6개 대학도서관의 목록을 직접 검색해 보았다.

② 탐색실험을 통한 포괄성 측정

포괄성을 측정하는 목적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탐색해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물론 목록을 통해 특정 저자의 특정 문헌만을 선별적으로 탐색해 내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저자의 모든 자료 혹은 특정 주제의 모든 자료에 대해 이용자는 포괄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더구나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에서 그 유용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만일 후

자에 대한 유용성이 입증되면 전자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여기서는 특정 저자에 의한 자료들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검색되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았다. 저자명 키워드 방식에 의해 '스캇 펙'의 자료를 탐색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의 검색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일부 탐색어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나 상이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⁸⁾ 동일한 저자라 하더라도 입력한 탐색어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상이하기 때문에 원하는 자료를 한번에 포괄적으로 탐색해 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

<표 5> 탐색질의를 이용한 검색결과

탐색어 \ 탐색결과	'가' 대학	'나' 대학	'다' 대학	'라' 대학	'마' 대학	'바' 대학	비고
스캇 펙	13	5	4	-	20	5	다양한 표기방식
스코트 펙	13	5	9	-	20	5	
스콧 펙	13	2	4	-	-	3	
스캇펙	-	-	-	-	20	-	띄어쓰기 유무
스코트펙	-	-	-	-	20	2	
스콧펙	-	-	-	-	-	1	
Scott Peck	20(-6)	17(-2)	11	8	21(-1)	16	원어명
M. Scott Peck	17(-4)	-	11	6	21(-1)	-	
Morgan Scott Peck	14(-1)	9	2	1	-	1	
적합한 문헌의 총 수	14	15	11	8	20	16	

* ()안은 검색결과 중 부적합한 자료의 수⁷⁾

7) 저자명에 대한 '키워드' 탐색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부적합한 자료들도 검색된다.

- Lorna Scott Fox & Dale Peck 공저
- G E Scott-Moncrieff Peck 저

이러한 경우, 검색요구에 부적합한 자료로 처리하여 ()속에 표기하였다.

8) '저자명'은 특정 저자의 저작을 집중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본표목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목록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기본표목'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현재는 기본표목을 고수하고 있는 목록이 있는가 하면 기본표목의 개념을 없애고 일괄 부출표목으로 적용한 목록도 있다(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도태현,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사』(한국도서관협회, 2003)). 여기서는 이러한 '존재론'과 '무용론'의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데이터가 기술된 필드가 기본표목이든 부출표목이든 간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인다. 이러한 결과는, 'M. Scott Pack'이 저술한 모든 자료를 탐색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 저자를 표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 내어 일일이 탐색해야만 그나마 원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가능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다양한 탐색어를 입력한 이용자만이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라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입력한 탐색어에 따라 결과가 이처럼 상이하다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레코드 간

의 서지적 관계(bibliographic relationship)⁹⁾가 거의 적용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용자가 특정 저자의 저작을 포괄적으로 검색해 내기란 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설령 특정 데이터 요소를 중심으로 연결 기능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역시 표기방법의 문제로 인해 데이터 표기가 완전 일치하는 데이터 요소 간의 관계만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 방법도 역시 원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크게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보면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저자명 표기방법을 전거데이터

번호	제목	저자	발행처	발행년	비고
1	The road less traveled: a new psychology of love, traditional values, and spiritual growth	Peck, M. Scott	Shoemaker Books/Catholicos	1978	
2	잃어버린 보물: 혼돈에 빠진 인생사, 그 상흔 회귀의 대가	Peck, M. Scott	김영사	2001	
3	거짓의 사랑론	Peck, M. Scott	유원노	1997	
4	우리가 잃고 가고자하는 진실	Peck, M. Scott	성광	1990	
5	해리 이야기	Peck, M. Scott	성광	1996	
6	거룩을 찾아서 내 잃어버린 영혼	Peck, M. Scott	고려원미디어	1996	
7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조언	Peck, M. Scott	김해	1996	
8	사랑 연습	Peck, M. Scott	유원	1993	
9	가치 잃은 삶, 재회: 고난의 열쇠	Peck, M. Scott	유원	1996	
10	잃어버린 영혼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Peck, M. Scott	고려원미디어	1996	
11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	Peck, M. Scott	김영사	1996	

번호	제목	저자	발행처	발행년
11	미혹도 가만 앉 걸	Peck, M. Scott	영원사	1995
12	강물 흐는 그대에게	Peck, M. Scott	오솔길	1994
13	미혹도 가만 앉	Peck, M. Scott	영원사	1992
14	우리가 잃고 가고자하는 진실	Peck, M. Scott	성광	1990
15	우리가 잃고 가고자하는 진실	Peck, M. Scott	유원	1989
16	People of the lie: the hope for healing human will	Peck, M. Scott	Shoemaker Books	1983
17	The road less traveled: a new psychology of love, traditional values, and spiritual growth	Peck, M. Scott	Shoemaker Books	1978

<그림 1> 전거데이터를 통한 저자명 통제 예시

<그림 2> 로컬 필드를 활용한 저자명 비통제 예시

9) 특정 자료는 다른 자료와 일정한 성질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러한 성질을 공유한 자료 간에는 일련의 관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목록에서는 이러한 연관 관계를 가진 자료들에 대한 '서지적 관계'를 규정하고, 이들 자료들을 상호 연결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동일한 성질을 가진 자료들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규정된 서지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등관계(복본, 복제본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료 관계), 파생관계(번역서, 개정판, 요약본 등 원작의 전부나 일부를 수정한 자료 관계), 기술관계(서평, 평론서, 해설집, 사례집, 주석서 등), 계층관계(합집, 총서 등), 딸림자료관계(교과서와 해설서, 부록 등), 전후관계(단행본의 속편 등), 공유관계(저자, 서명, 주제가 동일한 관계) 등. 이에 따르면 동일 저자의 다른 저작들은 '공유관계'에 의해 서지적 관계가 설정되며, 이 관계에 의해 동일 저자의 다른 저작들은 서로 연결된다. 가령, 동일 저자의 저작이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서명으로 출판된다 하더라도 이들 자료는 '원저저록'(MARC format의 765 필드)을 통해 결합되며, 그렇게 될 때 이용자는 이러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된다.

를 통해 통제하고 있는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레코드에 기재된 저자명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고('Peck, M. Scott'), 동일 저자에 의한 자료 혹은 특정 자료의 상이한 판이나 번역서는 모두 집중된다. 즉, 목록에 기술되어 있는 데이터가 일정 정도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어떠한 탐색어로 탐색하더라도 비교적 동일한 검색결과를 가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원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⁰⁾

반면, 시스템 상으로나 데이터의 표기방식으로나 전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림 2>의 경우) 검색결과가 입력된 데이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목록에 표기된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하는 레코드만을 검색해 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용자가 탐색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레코드에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검색결과는 제한된다. 그러나 사례로 제시된 <그림 2>의 레코드와 같이, 원자료에 표기된 저자명이 'M. 스캇 펙'이라 하더라도 'Peck, Morgan Scott' 과 '펙, 모간 스코트', '펙, M. 스캇'을 덧붙여 기술해 줌으로써(화살표로 표시된 필드) 탐색점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역시

일시적인 보완책일 뿐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¹¹⁾ 이렇듯, 데이터를 표기하는 과정 혹은 표기된 데이터를 통제하는 장치 없이 단순히 원자료에 표기된 데이터만을 입력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탐색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비교적 표기방식 자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국인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표기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동명이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적합한 결과가 너무 많이 제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²⁾

이러한 상황은 다름아닌 우리나라 최상위권 대학도서관의 목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문제를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만,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아직 대다수의 도서관목록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이용자들이 목록 이용을 주저하는 원인이 있다.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기능이 우리의 도서관목록에서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 10) 표본 도서관으로 선정된 6개 대학도서관 중에서 서지 DB와 별도로 전거 DB를 유지하여 특정 항목에 대한 일괄 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가' 대학도서관과 '마' 대학도서관 그리고 '바' 대학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KORMARC를 활용한 저자명 전거통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전거용 KORMARC 형식만 개발되었을 뿐 각 필드에 해당하는 표목선정이나 기술규칙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로 미루어보아,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목록의 대부분은 '저자명'과 같은 검색 기준점이 전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마찬가지로, 일본인이나 중국인의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발견된다. '大江健三郎'이란 일본 저자를 목록에서 탐색해보면, 일관되지 못한 표기방법(오에 겐자부로; 오에 켄자부로; 오오에 겐자부로; 오오에 켄자부로; Ooe Kenzaburo; O'e Kenzaburo; O'e Kenzaburo; 대강건삼랑)으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2) AACR에서는 이러한 혼돈을 없애기 위하여 저자의 생몰년이나 직업, 주소, 직위나 사무소명, 학위명 등과 같은 한정어를 이름에 부가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도서관목록이 원자료에 포함된 특정 데이터를 단순히 '기술'(describing)만 하고 있지 기술과정에서의 적절한 '통제'(control)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기에, 도서관목록은 곧 원자료에 포함된 데이터를 단순히 일정한 형식에 따라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3. 2. 2 내용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가?

도서관목록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고 나면, 이용자는 이 중에서 자신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목록에 수록된 내용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어 적합한 자료인지를 식별하는데 직접적인 단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은 그 자체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에, 현단계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그 유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앞서 '포괄성' 측정을 위해 검색한 결과 <표 5>를 활용하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검색 결과를 보인 레코드('Scott Peck'의 검색결과로 출력된 93건)를 표본 레코드로 하여 지표로 선정한 '단위 레코드에 기술된 데이터의 규모'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6개 대학도서관의 목록으로부터 검색된 표본 레코드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하여, 단 한번이라도 나타나는 데이터 필드를 모두 점검하였다.¹³⁾ 그 결과, 현재 6개 대학도서관의 단행본 목록레코드에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 필드는 총 13개로 분류된다.¹⁴⁾ 그러나 이 중에는 일부 도서관에서 생산된 목록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있고, 특정 자료에 대한 목록에서만 발견되는 데이터 필드도 있다. 혹은 '표제'와 '저자명', '발행사항', '형태사항', '소장정보'와 같이 모든 레코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데이터도 있고, '판차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ISBN' 등과 같이 자료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발견되는 데이터도 있다. 종합해 보면, 표본 레코드는 단위 레코드당 대개 약 8~9개의 데이터 필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6개 대학도서관의 목록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도서관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은 이용자가 자료의 내용을 식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들로 '조작'되어 있다. 즉, 이미 오래 전 서지레코드를 디자인할 때, 공통의 데이터 요소를 추출하여 그 실체를 상세하게 정의하였으며, 더구나 이 내용은 서지데이터의 교환을 전제로 한 '기계가독목록'(MARC format)을 통해 더욱 굳어져 왔다. 따라서 현재의 목록레코드에 수록되어 있는 이러한 내

13) 대부분의 도서관목록은 <간략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레코드는 '상세정보'에 기반한다.

14) ① 자료유형, ② 저자, ③ 서명/저자사항, ④ 판차사항, ⑤ 발행사항, ⑥ 형태사항, ⑦ 총서사항, ⑧ 주기사항(관계, 서지주기, 원서명), ⑨ ISBN, ⑩ 주제명, ⑪ 분류기호 또는 청구기호, ⑫ 소장정보, ⑬ 기타(제어번호, 발행국, 언어, 가격)

용은 이용자들이 자료의 내용을 가장 잘 식별해 낼 수 있는 데이터로 일률적으로 조작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목록레코드를 데이터 필드별로 분석해 보았다(여기서는 단행본 레코드 78건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78개의 단행본 레코드(MARC format)를 데이터 필드별로 분석한 결과, 이들 레코드에서 단 한번이라도 사용된 데이터 필드는 총 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레코드당 계산해보면, 평균 14.7개의 데이터 필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코드에 기술된 데이터의 규모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이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 절반에 이르는 데이터 필드(20개, 단위 레코드당 평균 6.8개)가 서지레코드의 처리에 사용되거나 레코드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된 것이다. 물론 이조차도 정해진 규정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지 않아, 데이터 필드 자체가 누락된 레코드가 많이 발견된다. 특히,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검색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데이터 필드들은 과감히 생략되어 있다.¹⁵⁾ 약간씩의 차이는 발견되지만 6개 대학도서관의 목록 모두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히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어찌되었건, 전체 레

코드 중 레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된 데이터 필드를 제외하면, 나머지 19개의 데이터 필드에 이용자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데이터가 수록된다. 앞서 표본 레코드를 통해 살펴보았던 13개 항목이 바로 이들 데이터 필드로부터 추출된 것이다. 따라서 '관리용' 데이터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인지를 식별하는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목록에 기술되어 있는 데이터를 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따라 구분해 보았다. 즉, 도서관목록에 기술되어 있는 서지데이터를 '이용 목적'과 '이용 단계'에 따라 ① 자료의 외형적 속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혹은 가장 뚜렷이 나타내주는 데이터 요소와 ② 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요소, ③ 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요소, 그리고 ④ 소장정보와 소재위치를 제시하는 데이터 요소¹⁶⁾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표 6 참조). 다음, 구분된 각 항목에 따라 현단계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을 나누어봄으로써 이 중 어떤 부분이 보다 상세한지 혹은 불충분한지를

15) 가령, 040 필드의 '목록작성기관'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체 78건 중 42건의 레코드에서만 발견된다. 더구나 42건의 레코드 중에는 '\$a 최초목록작성기관'과 '\$c 입력기관'에 대한 데이터 없이 바로 '\$d 수정기관' 데이터만 입력되어 있는 레코드들도 상당수 발견된다. 여러 기관의 서지레코드를 상호 참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의 레코드를 참조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였거나 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최종 수정한 기관에 대한 데이터만 기술한 것이 아닌가 추측될 뿐이다.

16) 소장정보는 원하는 자료인지를 식별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목록에 수록된 내용을 구분하는 근거로서만 사용하였다.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6〉에 나타나듯이, 자료의 속성을 가장 직접적이고 뚜렷하게 구분해 주는 요소로는 '저자'와 '표제'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는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탐색 접근점이자 자료의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록형식과 목록기술규칙에서 이들 데이터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그만큼 관련된 데이터 필드가 세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검색화면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항목 1). 그러나 저자나 표제가 동일하여 그 異同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록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개별 자료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판차사항이나 발행사항, 형태사항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동일한 저자의 동일한 표제라 하더라도 어떻게 다른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자신이 '보다' 원하는 자료를 선별할 수 있게 된다(항목 2). 이처럼, '항목 1'과 '항목 2'는 자료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속성'을 있는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개별 자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용자가 특정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할 때 직접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데이터로는 〈표 6〉에서 보듯이 '주제명'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항목 3). '무엇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현재 주제명 이외에 어떠한 것도 없기

〈표 6〉 데이터 필드의 역할과 활용도

항 목	해당 내용	해당 필드
1. 직접적인 탐색접근점으로 자료의 외형적 속성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주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저술에 관련된 사람, 단체, 기관) • 표제(별서명, 원서명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110), 245, 700, (710), 900, (910) 필드 • (130), 245, (240), (730), 740, (930), 940 필드
2. ①의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는데 필요한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차사항(동일 자료의 내용변경에 관한 정보) • 발행사항(발행, 인쇄배포 등에 관한 정보) • 형태사항(자료의 물리적 특징에 관한 정보) • 총서사항(동일한 체계로 발간된 자료에 관한 정보) • 주기사항(자료의 내용에 대한 보완 정보) • ISBN(개별 자료에 부가된 고유번호) • 가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 필드 • 260, (263) 필드 • 300 필드 • 440, 490, (830), (949) 필드 • 500, 504, 507 필드 등 • 020 필드 • 950 필드
3.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명(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에 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0, 653 필드
4. 소장정보와 소재위치를 제시해 주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관청구기호 • 별치기호 • 소장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0 필드 • 093 필드 • 852 필드(혹은 별도의 소장레코드)

* ()안은 표본 레코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각 항목에 해당되는 데이터 필드임.

때문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LC나 OCLC 등에서 작성한 목록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서양서' 목록에서만 보일 뿐 국내자료 중에서 주제명 데이터는 단 4건의 레코드에서만 발견된다. 그것도 표제에 대한 단순한 '동어반복'이거나 너무나 비상식적인 내용이 입력되어 있어 오히려 목록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¹⁷⁾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제공되는 도서관목록을 통해 이용자가 자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표제를 통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표제는 자료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자가 채택한 어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표제들이 상당수 있어, 표제만으로 내용을 추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제'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직접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물리적인 실체를 구별하기 위한 외형적 속성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단계 도서관목록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자료인지를 '내용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을 자료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속성'(外寔)과 '내용적인 속성'(內包)으로 양분해 보면, 이 두 측면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의 외형적인 속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도서관목록은

곧 자료의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특성을 일관된 형식에 따라 정리해 놓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가장 만족할 만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도서관목록은 개별 자료의 고유한 특성과 실제 내용, 그리고 관련된 유용한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유용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이용자들 대부분이 상업적인 서지 DB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 DB에서 제공하는 '고급' 정보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목록은 내용적 불충분으로 인해 이들의 정보요구에 대처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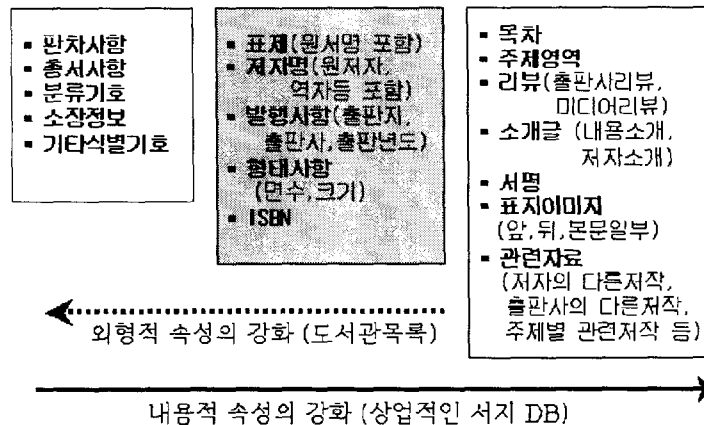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이용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도서관목록보다는 오히려 상업적인 서지 DB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점 등이 제공하는 목록이 도서관목록에 비해 훨씬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차나 주제영역, 리뷰, 서평 등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식별해 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줌으로써¹⁸⁾, 이용자들에게 검색도구로서 그리고 식별도구로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목록과 비교하여 이들이 가지는 상대적 유용성은 바로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들 상업적인 서지 DB에 비해 도서

17) 표본 레코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스캇 펙의 『끝나지 않은 길: 고통에서 자기완성으로의 임상심리론』에 대한 주제명 데이터는 '끝나지', '길', '고통', '자기완성', '임상심리론'으로, 그리고 소설로 분류된 『창가의 침대』에 대해서는 '창가', '침대', 'bed', 'window'로 기술되어 있다.

관목록이 그다지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내용적 유용성'의 결여에서 비롯되었음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부 도서관에서는 내용적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원자료의 '목차'를 서지레코드에 직접 기술하는가 하면, 독립된 레코드에 '비평'이나 '초록' 등을 수록한 후 서지레코드와 연동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비교적 이용자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일부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며, 이 결과는 표본으로 선정한 일부 도서관의 목록에서도 지엽적으로 발견된다(표본 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상위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표준화된 형식과 규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하는데 그리고 탐색된 결과 중에서 보다 적합한 자료를 식별해 내는데 과연 무엇이 더 도움이 되며, 더불어 도서관목록 본연의 의무에 어느 것이 더 충실한지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



<그림 3> 도서관목록과 상업적인 서지 DB의 내용 비교

18) 도서관목록에서도 '주제명' 또는 '분류기호'를 통해 주제를 제시해 주고 있지만, 인터넷 서점 목록에서 제공하는 '주제영역' 정보가 관련된 주제를 보다 쉽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타벅스의 『아직도 가야할 길』에 대한 주제표현 방식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역시 도서관 목록은 엄격한 '형식주의'에 매여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서점 목록 등은 비교적 유연하게 표현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목록의 주제표현 방식	인터넷 서점 목록의 주제표현 방식
주제명 ---개인항상---개인분석 주제분류번호 158.1	• 자기계발→ 인간관계→ 남녀관계(연애) • 자기계발→ 인간관계→ 가족의 인간관계 • 인문학→ 심리학/정신분석학→ 심리학/정신분석학 • 건강→ 정신건강→ 심리치료

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도서관목록이 단순히 외형적 속성만을 형식에 맞춰 제시해주는 전형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내용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존재한다.

3. 2. 3 원자료의 속성을 완전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도서관목록은 원자료에 대한 대체물(surrogates)이기 때문에 원자료에 관한 정보를 완전하게 담고 있어야 한다. 만약 개별 레코드의 내용이 불완전하다면 검색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상 검색되더라도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 레코드를 구성하는 데이터 필드와 데이터의 완전성은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결정짓는 또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위 레코드의 '완전성'은 그 근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목록생산자의 입장에서는 표준으로 정한 형식이나 기술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와 같은 레코드 자체가 가지는 '체제의 완전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목록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보다는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중복됨이 없이 원자료의 주요한 속성을 완전하게 수록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을 중시하면서 앞서 논의되었던 '원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검색하는데' 그리고 '원하는 자료인지를 식별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완벽하게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앞서 '포괄성' 측정을 위해 검색된 결과 중에서 가장 많은 검색결과를 보인 레코드(<표 5>에서 'Scott Peck'의 검색결과로 출력된 93건)를 표본 레코드로 하여, 레코드에 기술된 데이터 혹은 데이터 필드가 불완전한 사례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데이터 필드 값이 비어있거나 데이터 필드와 데이터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혹은 특정 데이터가 중복 수록되어 있는 경우 등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표본으로 선정한 도서관목록의 품질이 편목담당사서들로부터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²⁰⁾

이에, 6개 대학도서관의 목록에서 직접 문제점으로 발견된 두 가지 사례, 즉 ① 데이터 필드의 누락으로 관련된 데이터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데이터 필드의 포괄성)와 ② 데이터 필드는 존재하지만 수록된 데이터의 일부가 불완전한 경우(데이터 필드 내 데이터의 비누락성)만을 지표로 하여 그 사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데이터 필드와 데이터의 값이 단 하나라도 불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는 레코드는 총 93건 중에 34건(36.6%)으로 조사되어,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의 완전성 문

19) 실제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도 도서관목록의 형식과 체제 혹은 목록레코드의 구조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 '완전성'에 대한 문제는 의도적으로 상위그룹을 표본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

제 또한 현단계 도서관목록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임이 드러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필드의 포괄성

표본 도서관으로 선정한 6개 대학도서관 모두 데이터 필드는 존재하지만 필드 내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원자료를 확인해 보면 관련된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력 레코드에서의 데이터 누락으로 검색화면에 데이터 필드 자체가 누락된 경우는 있다. 가령, 동일한 자료에 대한 목록레코드를 비교해 보면, 데이터의 입력 누락으로 특정 필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93건의 표본 레코드 중에서 이처럼 데이터 필드 자체가 누락된 사례는 원서명 필드(3건)와 ISBN 필드(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정 데이터의 입력 오류로 인해 데이터 필드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데이터로의 검색이 불가능하며 다른 항목에 의해 검색되더라도 내용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는 목록레코드 생산 과정에서의 부주의나 확인 작업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표본 레코드로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데이터 필드의 누락으로 인한 완전성 결여 또한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② 데이터 필드 내 데이터의 비누락성

데이터 필드 자체가 누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필드 내에 특정 데이터가 기술되

어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면 역시 검색과 내용식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료와의 대조없이, 레코드에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만으로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색된 93건의 레코드 중에서 6개 대학도서관의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레코드만을 대상으로, 각 레코드를 비교한 후 데이터 필드에 수록된 데이터의 일부가 불완전한 경우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장 빈번하게 발견된 항목은 표제를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설명어구'의 유무에서 나타났다. 즉, 표제면이나 판권기, 권두, 책등, 표지 등에 본서명 혹은 원서명을 보완하는 형식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 레코드도 있고 기재하지 않은 레코드도 발견된다. 특히, 동일한 자료에 대해 각기 다른 형식을 보이고 있는 가령, 본서명 『끝나지 않은 길』을 설명하는 어구인 「고통에서 자기완성으로의 임상심리론」을 '부서명'으로 취급하여 서명저자사항(245 필드의 \$b)에 기재한 레코드가 있는 반면, '관계'로 처리하여 일반주기사항(500 필드)에 기재한 레코드도 있다. 동일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처리하는 방식이 이처럼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 더구나 데이터가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은 레코드도 발견된다. 따라서 비록 기재된 데이터 필드가 상이하더라도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③의 경우처럼 특정 데이터가 어떠한 필드에도 수록되지 않은 경우만을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과적으로, 본서명을 설명하는 데이터 6건과 번역서의 원서명을 설명하는 데이터 25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접적인 탐색 접근점으로 활용될 여지는 거의 없지만, 데이터 필드에 수록된 특정 데이터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도 있었다. 가령, '형태사항'에 기술된 데이터가 단지 '1책'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2건)와 '총서사항' 필드에 총서명은 있으나 총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2건)도 발견되었다.

3. 2. 4 데이터가 원자료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원자료에 대한 대체물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은 원자료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확성이 결여된 대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신뢰감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자료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목록생산자와 목록이용자 두 그룹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위 레코드에 수록된 데이터는 그 내용 뿐 아니라 표기방법에 있어서도 당연히 오류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 눈에 드러나는 철자 오류나 띄어쓰

기 오류에서부터 특정 데이터의 값이 잘못 수록되어 있는 사례 등이 종종 발견된다. 특히, 이용자 검색용이 아닌 입력 레코드(MARC format) 자체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²¹⁾

이에,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데이터가 원자료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표집분석(〈표 5〉에서 'Scott Peck'의 검색결과로 출력된 93건의 레코드)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두 가지 오류, 즉 ① 목록에 수록된 데이터의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와 ② 오자와 탈자 등 데이터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지표로 설정하여 표본 레코드를 조사해 보았다.²²⁾ 그 결과, 전체 93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부정확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는 레코드는 22건(23.7%)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포괄성이나 상세성, 그리고 완전성에 이어, 정확성 또한 현단계 도서관목록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결국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결정하는데 치명적인 결합이 되고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수록된 데이터의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데이터의 내용이 정확

21) 대부분의 도서관목록은 검색결과에 대한 '마크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레코드에 입력된 데이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볼 수 있다. 가령, 레코드의 길이나 형태, 그리고 서지적 수준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리더부'(Leader)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된다.

사례1) LDR 00625cam 2200181 0 4500 : 목록기술규칙을 'KORMARC 기술규칙'(기호: k)을 적용하면서 AACR2를 의미하는 기호 'a'로 표기되어 있음.

사례2) LDR 00940cam 2200303 0 4500 : 서지적 수준(Encoding level)에 해당되는 기호 중 'K'는 정의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되어 있음.

22) 표본 레코드는 이용자 검색용 화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입력된 레코드(MARC format)로는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검색결과용으로 제시된 레코드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부정확한 데이터는 레코드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검색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목록생산자들은 이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이 급증하면서, 점검이나 확인작업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더구나, 원자료와의 대조없이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 도서관목록에는 데이터의 내용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표집분석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적지않게 발견되었는데, 데이터의 내용이 부정확한 사례는 출판지(7건), 총서사항(4건), 출판년(3건), 출판사(1건) 등에서 발견되었다.

② 수록된 데이터의 표기가 부정확한 경우
한편, 수록된 데이터의 내용은 정확하나 표기상의 오류가 있는 레코드도 발견되었다. 표

기 오류 역시 검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논의하고자 할 때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93건의 표본 레코드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의 표기가 부정확한 경우는 철자 오류(3건)와 띄어쓰기 오류(2건), 그리고 기타 표기방법에서의 오류(2건)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4>은 철자 오류, 띄어쓰기 오류, 그리고 앞서 지적된 데이터 내용의 오류가 총체적으로 발견된 전형적인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입력상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상위 수준의 대학도서관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목록에서조차 이러한 표기에 의한 오류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우리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이 무엇이건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데이터는 사실 그대로를 반영해야 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정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는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거의 완벽한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

항 목	내 용
서 명 / 저 자	마직도 가야할 길 / M. 스킷 펙 지음 ; 신승철 ; 미승만 [공]역.
원 서 명	(The) Roadless travelled,
개 인 저 자	Peck, M. Scott (Morgan Scott), 1936- 신승철, 미승만.
발 행 사 항	서울 ; 열음사, 1991.
형 태 사 항	283 p. ; 24 cm.

철자오류 (traveled)

띄어쓰기 오류 (Road less)

내용오류 (부산)

<그림 4> 데이터의 표기가 부정확한 경우

한 오류가 적은 목록만이 도서관목록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결론: 유용성의 관점에서 본 도서관목록의 한계와 문제점

도서관목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데이터 자체의 '무결성'이나 수록된 데이터의 '형식성'에 치우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목록전문가나 목록생산자의 이해와 명분에 얽매어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도서관목록은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일종의 '정보검색시스템'이 되어 있다. 더 이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도구가 아니라,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단계 도서관목록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접근(information access)을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요구에 대한 해결 경로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목록에 대한 목록이용자의 관점을 중시하면서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즉, 도서관이용자들에게 목록은 얼마나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목록은 이러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얼마나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다. 도서관목록은 결국 최종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목록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도서관목록은 원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그 중에서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에서조차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목록은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로서 그다지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때나 검색결과 중에서 그들의 정보요구에 일치하는 자료를 찾아낼 때 모두 '유용성'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도서관목록에는 희박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도서관목록은 원자료에 대한 대체물로서 이용자가 원자료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목록생산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목록을 생산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이용자들에게 왜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의 해답은 도서관목록에 대한 목록생산자와 목록이용자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목록생산자 그룹과 목록이용자 그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목록을 생산하는 편목사서들은 외형적으로 완벽한 형태를 갖춘 목록을 생산하는데 집착하고 있었고, 그 결과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형식의 완전성과 같은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목록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외

형적인 체제의 완벽성보다는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이 얼마나 상세한지,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얼마나 수록되어 있는지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이처럼 도서관목록에 대한 이들 두 그룹의 인식은 도서관목록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상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목록생산자보다는 목록이용자의 관점을 중시하면서 도서관목록의 유용성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서관목록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망라적으로 탐색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적합한 자료인지를 식별하는데 도서관목록이 도움이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 것이다. 검증 결과에서 현단계 도서관목록은 포괄성이나 상세성, 완전성, 정확성 모두에서 도서관목록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상세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어 적합한 자료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가 도서관목록에는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4가지 기준

중에서도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록이용자들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현단계 도서관목록은 내용적 불충분으로 인해 유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용자의 관점에서 적합한 자료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계가 추구해왔던 관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목록에 수록된 '내용'보다는 목록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형식성'을 중시해 왔고,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완벽한 체제를 갖추는데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 온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목록이 추구해왔던 목록생산자와 목록전문가의 관점에 집착하던 관행을 지양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유용성을 증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도서관목록이 이용자들에게 진정한 '접속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점에서 '유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노지현. 2002.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목록의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133-153.
 도태현. 2003.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서은경. 2000. OPAC 시스템의 기능성 및 인터페이스 유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7(4): 187-206.
 유재욱. 1997.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31(4): 289-318.
- 이제환. 2002. 공동목록 DB의 품질평가와 품질관리: KERIS의 종합목록 DB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61-88.
- 조순영. 2002. 종합목록 데이터의 오류 유형에 관한 연구: KERIS 종합목록의 학위논문 서지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4): 5-19.
- Basch, R. 1990. Measuring the Quality of the Data: Report on the Fourth Annual SCOUG(The Southern California Online User's Group) Retreat. *Database Searcher*(Oct. 1990): 18-23.
- Battleson, Brenda; Booth, Austin and Weintrop, Jane. 2001. Usability Testing of an Academic Library Web Site: a case stud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7(3): 188-198.
- Cherry, John M. et al. 1994. OPACs in Twelve Canadian Academic Libraries: an Evaluation of Functional Capabilities and Interface Featur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13(3): 174-195.
- Cherry, John M. 1998. Bibliographic Displays in OPACs and Web Catalogs: How well do they comply with display guidelin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17(3): 124-137.
- Crater, Ruth C. 2000. *Managing Cataloging and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philosophies, practices and challenges at the onset of the 21st century*. New York: the Haworth Information Press.
- Gorman, Michael. 1990. *Technical services today and tomorrow*.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 Janes, Joseph W. 1994. Other People's Judgments: a comparison of users' and others' judgments of document relevance, topicality, and ut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3): 160-171.
- Oddy, Pat. 1996. *Future Libraries Future Catalogues*. London: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 Osborn, Andrew. 1941. The Crisis in Cataloging. *Library Quarterly*, 11(4): 393-411.
- Thomas, Sarah E. 1996. Quality in Bibliographic Control. *Library Trends*, 44(3): 491-505.